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충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교구 운영 발표 및 교역자·교구위원 간담회

우리 교회 교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당회실에서 교구 운영 발표회 및 교역자·교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교구의 교역자, 교구위원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이충윤 위임목사는 교인 가정의 심방을 통하여 심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피차 안위하여 위로를 주어야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전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교구 운영 발표회에서 제1교구와 제12교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1교구를 대표하여 최부길 장로는 발표를 통하여 89년 9월부터 제1교구 남전도회원 10여 명이 모여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현재는 남전도회가 합동으로 25명 이상 모여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결과 농촌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며 13명의 교인밖에 없었던 경북 금능군의 옥산교회가 현재는 90여 명의 교인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큼 전도의 불을 일으켰다고 했다. 또한 베드로전도회가 조직한 상조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큰 효



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12교구의 김재명 장로는 제12교구는 40대 이하의 구역장이 80%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부부동반 구역예배를 3개 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제12교구는 이 모임을 통하여 협력구역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구역 가족 간의 친교가 이루어지며 전도의 활성화 및 남자 성도들의 참여가 적극화 되어서 교회 각 부서의 헌신과 봉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부 간담회에서는 교구 운영에 관한 교역자 심방, 교구찬양대회, 교구야외예배, 교구모임, 교구협의회 운영 등 제반 문제가 광범위하게 토의되었다.

교역자·장로 기도회 은혜 중에 마쳐

금년 들어 두번째 교역자·장로 기도회가 3월 14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충현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교역자와 장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1부 순서로 먼저 예배를 드린 후 가진 기도회에서 제목을 따라 간절한 기도 순서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충현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위임목사와 원로목사를 위하여, 교역자와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충현의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사업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제10교구 가족 초청 만찬회

지난 3월 9일 오후 6시에는 선교관 만나홀에서 제10교구가 가족 초청 만찬회를 열었다.

이충윤 위임목사를 모시고 1부 예배를 드린 후 전승훈 집사의 인도에 따라 새매난 율동을 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또한 오는 4월 7일에 개최될 교구찬양대회에 출전할 가족팀을 선발하는 순서도 가졌다.

지역적인 문제로 애로움을 겪던 제10교구 가족들은 이 모임을 통해 더욱 열심히

제4교구 영성훈련

제4교구는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1차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기도원에 도착한 181명의 교구 가족들은 온 교구장 오진국 장로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제4교구 지도 목사인 최인근 목사는 다나엘 6 장 10 절부터 15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문을 열고”라는 설교를 하였다.

그 후 교구 가족들은 함께 애잔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기도원의 곳곳으로 흩어져 나라와 교회와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재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⑩

사랑하는 고등부 3학년 형제들이여, 생존경쟁이나 적자생존과 같은 진화론적 술어가 어째서 비성경적 개념인지 여기에 길게 논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삶에 얽매인 여러분의 마음에 이 두 단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께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근원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줄 알아 여기에 몇 자를 적고 싶습니다.

남을 이기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것을 성취시키면서 얻는 희열과 보람에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김으로 높고 위대한 자리를 얻으려는 탐욕으로서가 아니라,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서라도 거기에서 자기를 피조하신 창조자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참된 의미에서 인생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3이 되면 교회생활까지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태에서 우리 충현의 형제들만이라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촉진시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현의 고등부를 거쳐 가면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수많은 선배들이 이미 하늘의 구름떼처럼 여러분을 성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갖고 바른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여 민족사회는 물론 이 시대의 귀한 재목들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이충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90년도 제자 훈련 참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문회 장학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 주재

이충윤 위임목사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자훈련에서 참가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천국 일꾼의 삶에 대한 강의를 하며 수료증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이 목사는 22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문회에 참석하여 대한중원 모교의 교장을 환영케 된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장학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장학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본당 전자오르간 공사 끝나 ADC 9300 4단 알렌 디지털 컴퓨터로 교체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된 본당 전자 오르간 교체 공사가 완공되어 충현의 성도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오르간은 본당에서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본당의 규모에 맞게 특별히 주문하여 악기 전문회사인 알렌 오르간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전에 사용되던 오르간은 갈릴레 홀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양종섭 집사 청년 1부에 엠프 기증

초등 4부 부장 양종섭 집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명동과 창랑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 1부 선교부에 엠프를 기증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 날래 전파될 줄 믿는다.

90년도 상반기 장학금 수여

우리 교회 장학회는 90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 선발하고 오늘(3월 18일) 저녁 7시 찬양예배시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한다.

장학회는 해당자들이 6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반대학생 : 황옥진, 김형일, 홍경호, 송준엽, 정재웅, 김정호, 김광의, 박충렬, 조석재, 오장성, 박윤영, 김혜영, 최소영, 이정은, 조성희, 장혜진, 장명준, 이미리, 최연희, 이원주, 이명하

고 등 학 생 : 박지훈, 김성갑, 김영준, 김준환, 신익수, 장수진, 최혜숙, 서선화, 서인해, 김훈정, 김희진, 김진화

중 학 생 : 박동석, 일성이, 안치호, 양승원

기 타 : 장윤영, 김경남, 송소영, 조혜진, 김홍성, 이동욱, 이현욱, 염동성, 한우제, 김덕호

다녀와서 목회자세미나에 동구권



이 중 윤 목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리스도

(전호에서 계속)

우리를 루마니아에 초대해준 요한 보키안 (Joan Bochian) 목사와 더불어 그의 부친을 방문했다.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사수한 용감담게 한마디 한마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게가 있어 보였다. 70고령을 훨씬 넘은 노목사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학정에서 고투하시던 얘기를 묻는 필자 앞에서 계속 눈물을 담으면서 꿈같이 지나간 얘기들을 밤이 가는 줄 모르게 엮어나갔다. 우리는 담소하던 중 차를 마시면서 늦은 밤 텔레비전 뉴스에 눈을 모았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부카레스트의 심장부에 세워진 레닌 동상의 목에 밧줄을 매어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메운 것이다. 우리는 즉시 요한 목사의 안내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인생무상이라 했던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 영광도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 영광과 이름이 천년 만년 갈 줄 알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불쌍한 군상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시들이 떨어질 영광을 찾아 헤메고 있는 이리석은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3월 4일 주일이다. 새벽 3시경 잠이 깨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된다. 두고온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잃어버린 채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옛 애인을 만난 처녀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감격하고 있는 동유럽의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가 무엇을 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울 것을 찾고 파차 사랑과 전리로 섬기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외쳤다. 그렇다. 고난을 통해 다져진 그 순결한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장하다기보다는 두렵게 여겨질 만큼 경건했다.

오전 10시 토마스 왕 목사는 오순절교회에서, 그리고 필자는 개척교회에서 각각 초청을 받아 갔다. 필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그 교회의 알브 폴탄(Albu Poltan) 목사로부터 자기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성경 본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없이 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아무튼 주신 기회로 알고 본

문 분해를 하여 설교 구상을 간단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한 다음 강단 위에 올라갔다. 하나님은 세밀하셨다. 10시간 준비한 설교보다 더욱 크게 영감 있는 설교를 했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성찬식까지 있는 주일이라 은혜는 더욱 컸다.

우리는 다시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 부카레스트(루마니아)를 떠나 3월 5일(월) 오전 9시 50분 부다페스트(헝가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 집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유가 없었다. 왕 목사의 기지로 택시를 계약하여 유서 깊은 고도 부다페스트를 두 시간만에 둘러보면서 이미 국영 방송국에서까지 교회 집회를 소개할 정도의 개방 정책에 힘입어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당일 프라하(체코슬로바키아)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이었다. 비자 문제는 걱정으로 끝났고 일행은 5분내에 친절히 안내까지 받으면서 입국 수속을 마쳤다. 공항에 출영나오신 목사님들과 반갑게 만났다. 우리들의 집회는 지리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중심부가 되는 브르노(Brno) 시에서 거행되도록 준비가 되

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오랜 옛 친구와 우정을 나누듯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갖고 차 안에서 담소하다보니 어느새 새벽 2시 30분이 되었고 멀리만 보였던 프라하에 도착했다. 지하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파라 목사는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목사가 된 젊은이였지만 나이에 비해 가슴에서는 활화산이 타오르고 있는 듯 싶었다.

필자는 무너진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와 더불어 한반도의 휴전선도 깨어지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 아침 7시 비행기로 베를린을 향해 떠났다. 동독편에 있는 공항에 내렸지만 역시 입국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곧바로 서베를린으로 건너가 무너진 현장을 찾았다. 장벽 앞에 위치한 옛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는 오는 3월 10일 오후에 열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집회 준비가 한창이었다.

나는 뜨거운 감격과 우리 민족의 무거운 짐을 가슴에 안고 때마침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남아 있는 담벽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주여,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더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동유럽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을 뿐 내 마음을 식히지는 못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몇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다. 동유럽을 복음화하려면 우선 복음을 위해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껍박 중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는 하지만 평신도로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헝가리에 두개의 개혁 교회 신학교가 있으나 동유럽을 수용키엔 역부족이다. 불가리아와 같은 나라도 지하 신학교조차 없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학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겠다.

충현교회 부설 교회성장연구원에서는 국제 목회자 세미나 개강을 위해 이미 2년간 준비 단계를 마치고 급년 말정 첫학기의 개강을 서두르고 있다. 동구권 목사 40명, 즉 유고,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동독, 그리고 소련까지 포함하여 각 나라에서 우선 5명씩 선발하여 급년 11월 경 서울에서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저들을 초청키로 한 것이다. 고난 중에 성장한 한국 교회를 통한 훈련을 받게 될 때 저들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동구권 목회자 세미나에서 선교사로 지원한 20여 명의 젊은이들의 파송을 한국 교회가 도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회를 마음껏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독일)에 도착한 것은 3월 7일(수)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지금까지 다니며 만났던 사람과 얼굴 모습이나 문화가 다른 곳이 아니건만 전혀 새로운 세계에 온 느낌이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비행기에 타고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 것을 다 주시고서야 보내시는 것을 알았다. 비행기는 왕 목사께서 설교하시는 마르샤페(폴란드) 상공을 날고 있었으며 잠시 후엔 모스크바(소련)에 도착한다고 기장이 알려 주었다. 기어코 서바나도 보아야겠다는 바를처럼 나는 모스크바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어붙은 동토에도 더 크게, 더 우렁차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2시간 동안 정차했던 비행기는 시베리아 상공을 날았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원 2천년에 되기 전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소서.'

고난 통해 다져진 신앙 배워야

동유럽과 북한 선교 지원하는 한국 교회 되길

어 있어 비행장에서 바로 3시간 동안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바라보면서 집회 장소로 달려갔다.

집회 장소는 저 유명한 종교 개혁 전순교한 허스(Huss)의 이름을 딴 요한 허스 교회였다. 우리를 초청해준 루돌프 부빅(Rudolf Bubik) 목사와 파벨 티테라(Pavel Titera) 목사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지 우리를 껴안고 얼굴을 수없이 비비며 온 성도들과 함께 감사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 종교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카렐 하이스(Karel Hais) 박사도 프라하에서 왔다. 우리는 집회 후 이 나라 개신교 목사들과 하이스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 복음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밤 11시 30분까지 가졌다. 중국과 북한 복음화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감동한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육신도 건강한 법이다. 왕 목사는 다음 날 파르샤바(폴란드)를 거쳐 베를린을 방문한 후 귀국기로 하고 필자는 다음 날을 위해 프랭크 파라(Franc Pala) 목사의 도움으로 밤 11시 50분에 프라하로 떠났다.

그 슬한 고난과 역경을 이긴 이들답지 않게, 그러나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하

도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주시어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지난간 역사의 흔적만 간직한 채 거대한 박물관처럼 변해버린 서구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냈느까지 주셨다.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몇 가지 국제 행사로 인해 호텔을 구할 수가 없었다. 전화 번호를 찾아 전분이 있는 한국인 형제의 신세를 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보다는 여행의 마지막에 고난의 짐을 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심한 비바람을 헤치고 시내버스로 공항까지 갔다. 내가 탈 비행기는 한밤이 지나야 도착한다. 나는 대합실 현도통이에 자리를 잡고 새벽 2시까지 이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셨다. 호텔에 갔었다면 이같은 보고서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심한 빗소리에 비로써 새벽이 온 줄을 알았다. 나는 나의 조국에 그리고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교회 우리 충현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다. 추위와

기독교인과 레크리에이션

전 승 훈 집사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16세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뜻은 “건강한 여가의 활용”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1932년 L. A. 올림픽과 병행하여 레크리에이션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이때부터 레크리에이션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취미와 관심이 서로 다르듯이 레크리에이션도 각자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레크리에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레크리에이션은 가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고 여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수영, 골프 등은 레크리에이션이 되지만 수영 선수나 골프 선수에게 있어서의 수영이나 골프는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 없다. 또 고스트(도박)도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낀다 하여도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 될 수 없다. 레크리에이션을 정의하면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여가 활동이다.

레크리에이션에는 다종다양한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여섯형태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 ① 지적 레크리에이션 - 독서, 웅변, 채집, 퀴즈게임, 연구조사, 창작, 동화 등
- ②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 게임, 운동, 노래, 포크댄스, 축제, 각종 파티, 캠프, 봉사활동 등
- ③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수예, 공작, 영화감상 등

④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 각종 스포츠, 수렵, 낚시, 하이킹, 조깅, 등산 등

⑤ 취미적 레크리에이션 - 장기, 바둑, 수집, 꽃꽂이, 도자기 만들기 등

⑥ 관광적 레크리에이션 - 명승지 고적 답사, 여행, 단풍놀이 등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셋으로 나누면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여가로 구분한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퇴폐 향락문화와 과소비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올바른 사용하지 못하는 여가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더하여 주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세월(시간)을 아껴야 하는 (엡 5:16)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여가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즉 창조주 앞에서의 삶에는 남은 시간(여가)이나 쉼터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레크리에이션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여가선용, 휴양, 오락 또는 기분 전환 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기독교인의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레크리에이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재충전(일한 뒤의 쉼)이 되어야 하고 모임이나 조직이 활성화(친교) 되어야 하고, 각자의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레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이다.

영화 “순교보” 를 보고

권 정 미 (초등 6부)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겨울 계절학교 3째날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순교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이기풍은 쟁쟁한 목이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열심히 짓고 있던 성전을 부수는 등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하심과 같이 죄에 빠진 이기풍을 불러 주셨다.

목사님이 되셔서 이기풍 목사님은 먼저 제주도로 가셨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까지 수많은 천대를 받으셨다. 사람들은 양귀신이라 놀리고 밥 한 끼도 주지 않았으며 목사님을 멀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죽을 뻔한 아이

를 살리고,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일본의 억압시절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과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성도들과 더불어 찬송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을 때 그 신앙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신사참배를 하면 풀어준다고 일본군경은 말했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증거하셨다. 술한 매절도 참아내며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과연 죽음과 총 앞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번 영화를 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음향조정실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성령님께 맡기라”, “설교자와의 영적 교통”이라는 표어 아래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음향조정실은 말 그대로 온갖 최신 기계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음향조정실이 본당 6층에 자리잡고 있어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든 만큼 신앙심 또한 돈독하다.

이들은 녹음, 음향조정, 비디오 촬영, 동시 통역, 수화 파트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척대고 인원을 보강할 수 없는 것이 기계 조작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어서 기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매주 1부 예배부터 저녁예배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설교자와의 영적 교통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

는데 이들 중 어떤 봉사자는 1부 예배를 위해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지낸다

한다. 이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냐는 질문에 봉사자들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단순히 봉사하는 마음으로만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다보니 재미도 붙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이런 것들이 보람이라면 보람이겠지요.”라고 소박하게 말한다.

음향조정실 내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기계에서 유출되는 유해공기와 순환되지 않는 탁한 공기로 인한 두통으로 작업에 전념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조건을 조속한 시일내에 교회차원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도 중에 음향실을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일을 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교회와 청소년 교육

최 성 현 장로



기독교 교육을 사회에서의 학교교육과 구별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놀라운 관심 때문이며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계속 변화하며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피조물로 양육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 생명을 계속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잉태되고 출생되고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교육되어야 합니다.

외조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거저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되었듯이 우리들은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양육하는 일을 교육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교육은 학교와 학원, 과외 선생님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자족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청소년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의 올바른 심성 형성을 방해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유혹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영혼에는 관

심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며 경쟁 속의 사회생활과 미리 정해진 과정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삶을 본받기 위하여 성경이 허락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한 만큼 생명이 성장하고 투자한 만큼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과 애정이 자라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많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믿음을 전승한 청소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자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잔 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정 경 자 권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귀에 익은 귀절은 나에게 있어 진실로 가슴에 와 닿는 귀중한 말씀이다. 멀지 않아 육신을 바라보는 지금,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몇 차례나 위기를 넘기곤 했던 어려움은 지난날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살아난다.

나는 독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때만 되면 뽀뽀 다녔고 나는 그때마다 몹시도 우쭐거렸었다. 나의 교만함은 이화여대 음악과 뺏지를 달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그러다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천주교도 남편의 종교인 기독교도 모두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유난히도 더운 어느 여름날, 막내딸을 낳았다. 더운 날씨 탓인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인지 그후 견잡을 수 없이 몸은 쇠약해졌고 거기다 정신마저 약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고, 머리가 혼들리고 귀가 멍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몸과 마음의 병약함으로 큰 절망감에 빠져 있던 나는 어느날 동네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누가 날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고인이 된 고등학교 동창인 이정애 집사를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오랜만의 해후를 몹시 반가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때의 나의 상황을 털어놓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열과 성으로 봉사하면 그보다 더한 병도 나을 수 있음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

여 이야기하며, 마침 충현교회 여성찬양대에서 좋은 대원을 찾고 있으니 한 번 해보라는 권유를 해주었다.

나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이 집사를 따라 충현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날은 여성찬양대가 성탄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학창시절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헨델의 메시아였다. 그날 나는 마음껏 찬양하였다. 그 동안 잃어 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마음으로...

1967년 성탄절, 많은 성도들과 성가대원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성탄 축하 음악 예배에서의 솔로를 무사히 마쳤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충현교회에 발을 들여 놓은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나의 뜨거운 입술로 부르는 찬양과 기도 에 하나님은 죽히 응답하셨고 나의 몸과 마음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해진 것이다. 이 몸을 다시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까지 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부족한 한 생명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나의 못난 옛 모습의 자아가 꿈틀거리던 무렵의 어느날, 뒤통에 사는 여자가 투신자살하였다. 그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버리셨을까 나도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순식간에 두려움 속에 갇혀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고소공포증세가 조금만 높은 곳에서도 나타나 주책으로 이사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다. 그때까지 사단의 존

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나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고 시련이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굳건한 믿음밖에 없다는 신념이 생겼다. 하루종일 기도와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주님도 승리하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차차 접하게 되었다. 그때 김경성 전도사님과 많은 상담을 하는 동안 나를 쓰러뜨리려던 마귀가 드디어는 손을 들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에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나를 구원

하실 이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들 이렇게 호되게 매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못난 종을, 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방황하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힘이 드셨을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감히 해 본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딸이 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린다.

전도의 봄

김 운 섭 성도

하나님!

당신 앞에서 죄악의 긴 겨울은
마귀처럼 열둘 길로 도망합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죄악을 씹으며
얼어붙은 마음 송곳으로 부셔 내리고
다사다난의 89년 멀어진 과거여

하나님!

대망의 90년 손 모아 기도합니다
눈부시게 떠오르는 당신의 눈동자
우리는 창조의 빛을 바라봅니다
아- 믿는 자여
봄과 함께 나래를 펴라
깨어라 소리 높여 외치라 전도하라
회개하라 세상 죄인 어둠에서 벗어나라

저 둘는 해 아침 빛 당신의 숨결 느끼며
세상 죄인들아 진리의 빛으로 나오라
움츠린 마음에 당신의 말씀 생기 돌고
하나님의 씨앗, 온 세상에 움트는 줄기여
믿는 자여 세상 죄인 구원하라
들으라 세상이
흔들어 잠깨어 여명을 보라

주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온 누리에 복음 향기 주님의 입김이여
목마른 자여 주님의 생수를 마시라
오늘도 주님은 천국에서
어둠의 자식들을 기다리신다
오라—
영원한 보혈의 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충현다락방

제 12 과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성경 : 히 7 : 11~28

요절 : 그러므로 자기를 힘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 : 25)

찬송 : 193, 194

제 23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마 21 : 5; 히 5 : 5~7, 12 : 25).

제 24 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요 15 : 15, 20 : 31).

제 25 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롬 3 : 26, 10 : 4; 히 2 : 17, 7 : 25, 9 : 14, 28).

제 26 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시는 것입니다(행 15 : 14~16; 고전 15 : 25).

설 명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으며 지금도 항상 일하십니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날마다 깊이 알고 감사해야 마땅하다.

질 문

1.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직분을 행사하십니까?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히 7 : 25)?